

빌립의 전도 방식

사도행전 8:4-13, 26-40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교회 봉사를 위하여 뽑힌 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큰 열매를 맺는다. 앞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긴 설교를 살펴 보았는데 오늘은 빌립의 전도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대중 전도(8:4-13)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는 큰 무리들 앞에서 전도하는 대중 전도이었다. 5-6절을 읽어 보자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리들이 한마음으로 그가 한 말을 따랐다고 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군중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많은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가 쉽게 준욱이 들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전할 복음이 분명하면 큰 무리도 한사람으로 생각하며 전하면 될 것이다.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감은 천년가까이 지속 되었기 때문이다. BC 722년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게 됨으로 혼혈족이 되었고 그들은 모세 5경만을 성경으로 믿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시절에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를 갈 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 길이지만 그 길을 통과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하여 돌아서 갔던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 하지 안 했다고 했다(요한복음 4:9),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가셨고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녀를 구원하셨다. 그녀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복음, 곧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운다.

빌립도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에 담대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였다(5).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였다(12). 복음을 들은 무리들은 말씀을 받아 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표적이 따르고 귀신이 추방 되고 중풍병자들이 낳은 기적이 일어났다. 복음이 바로 전파되는 곳에는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와 같은 표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중의 하나요 하늘 나라의 특징이기도 하다.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 일대 일 전도(8:26-40)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 가는 중이었다. 그는 재무 장관

정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이요 유대인이었을 것이라고 존스토트는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셨다(29). 빌립은 성령에 즉각 순종하여 달려가서 그를 만났다. 그가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묻고는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 타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째는 성경이고 둘째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해설하고 적용하는 교사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사들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성경을 잘 가르쳐 주는 교사가 없다면 아무리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도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으니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성경 교사들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마차 위에서 빌립은 그 내시에게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쳤다.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53:7-8절 말씀이었다. 그내용을 32-33절에서 기록해 주고 있다.

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는 이 말씀에서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나 자기를 가리킴이나 타인을 가리킴이나”고 물었다. 빌립은 이 본문이 예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풀어 가르쳤다.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모든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를 가르치지 않는 설교자들은 다른 사람의 다리를 굽는 것과 같다. 아무리 다리를 굽어도 시원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설교는 우리의 가려운 영혼을 시원하게 굽어 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알아 감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빌립의 예수를 증거하는 일대일 공부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가져온다.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수레 위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내시와 빌립의 일대일 성경 공부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 왔다.

이상에서 우리는 빌립의 두 가지 전도법을 살펴 보았다. 많은 무리들에게 대중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일대일로 개인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다. 대중 전도나 일대일 전도나 공통점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큰 기쁨이 있었다. 8절 39절을 읽어 보라.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39b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대중 전도의 기회를 갖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대일 성경공부의 기회를 갖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일대일 성경공부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 한경헌 김수옥 선교사는 공산국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밤새워 일대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 성도가 함께 모이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 아니

라 일대일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매우 필요하다. 나는 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많은 청중 앞에서 설교도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전도 방법은 일대 일이다. 일대일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기의 아픔을 예수님 앞에 들어냄으로 주님의 치유를 받는 경우를 많이 체험 했다. ESF는 학생 복음단체로서 일대일로 성경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대중적으로 모이기 힘들 때도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과거 온마음교회 청년회를 이루는데도 한 대학생 자매님에게 일대일 성경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많은 사람을 모일 수는 없지만 한 사람과 일대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4사람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면 비록 더딜지라도 교회는 점차 성장하게 될 것이다.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에티오피아 선교를 성공적으로 했으리라 믿는다.

나는 한국에 공부하러온 외국인 학생을 전도하여 그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전도자가 됨으로 세계선교를 이루는 사역을 꿈꾸고 있다. 대학 시절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홍귀표 선교사가 이 방식으로 성공적인 세계선교를 하고 있다. 미국에 이민온 다민족 교회를 세워 성도들을 집중 적으로 훈련시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면 교회를 세우고 대학생 선교를 한다. 이 방식으로 나도 외국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한국에 오는데 그들을 전도하고 훈련 시켜서 자기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시작은 한 사람의 외국인학생과 일대일 성경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적어도 한 사람과 만이라도 일대일로 성경공부를 시도해 보시기를 바란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한다. 비록 많은 청중들에게 설교할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라도 한 사람과 일대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일대일 성경공부를 이루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자 해도 성경을 배워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한 영혼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 주실 것이다. 정 일대일을 할 사람이 없으면 가족과 해도 좋을 것이다.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과 일대일로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 주셔서 더 많은 사람과 일대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빌립과 같이 일대일로 복음을 전해서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